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스테반의 영적전쟁

성경: 사도행전 6장 8-15절

Tag:

8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 이른 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10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행6:8-15)

오늘 말씀은 스테반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다음 성령께서 임하셨다.

약 120여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제자들의 머리에 임하였고, 그들은 각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다.

어디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

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누가 내 고향 방언으로 기도하는가 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놀랐다.

이 어찌 된 일인가? (이 사람들이 낯술을 너무 많이 마셨군.)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 담대하게 설교하였다. 베드로의 설교는 놀라웠으며, 큰 감화력을 나타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갑자기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

어느날 베드로는 성전으로 가는 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였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사람들이 놀라자 베드로는 즉시 설교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나, 당국자들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싫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이튿날 그들은 재판관을 열어 ‘너희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베푸느냐’고 물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직 성전과 율법과 제사를 공격하지는 않음)**

그러자 그들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 다만 겁박을 주어 풀어주자고 결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

## 단하라

베드로는 교회로 돌아와서 이 일을 보고 하였고, 함께 기도하였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

]

그 후에도 당국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가두었으나, 마땅히 금지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학자 가말리엘이 상관말고 버려두라 하였다. 이 운동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당연히 소멸될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당신들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수 없이 그 날도 채찍질하여 풀어 주었으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이때까지의 핍박은 오히려 교회를 더 왕성하게 하는 핍박.

\*이 후의 핍박은 진짜 기독교가 되는 것에 대한 핍박.

이때까지는 그리 큰 핍박이 아니었으나, 본격적인 핍박이 곧 시작되었으니, 이는 바리새인들이 주도적으로 교리와 관련된 핍박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위대한 메시야를 꿈꾸고 있었다. 십자가에 죽은 메시야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를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엘리야나 엘리사 쫓으므로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그들이 쌓아놓은 율법주의 때문이다. 그들이 바라보는 막연한 환상적 메시야는 완벽한 율법주의자여야 했다. 완벽한 왕자여야 하고, 완벽한 영웅이어야 했다. 엘리야처럼 기적의 사람, 솔로몬처럼 지혜의 사람(성전율법주의), 다윗처럼 전쟁의 영웅이어야 했다.

이미 그들의 율법주의는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충분하였다. 심지어 병자를 고치는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악한 행위요, 메시야가 아니라는 증거로 삼았다. 지역 차별주의 또한 심각했다. 다 눈감아 준다고 해도 촌구석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바리새인 가문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득권의 변화에 있었다. 애초에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증언한 메시야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제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고 싶어도 그들은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적 앞에서도 자신들의 영적 자존심을 붙들고 교회를 탄압했던 것이다.

오늘 스테반집사의 등장은 드디어 바리새인들과의 제1차 대전을 예고하고 있었다.(유대교의 핵심인 성전을 공격하는 스테반) 안수받은 집사 가운데 스테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총각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마 바울 또래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마도 믿음이 출중한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제사장 가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어려서는 헬라 어느 지역에서 성장하였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를 믿은 교인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스테반처럼 헬라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살고 함께 교류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7집사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출하였다.

아마도 스테반은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회당활동을 통한 교류도 있었고, 설교가로도 유명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회당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으나, 문제는 오고가는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드나들면서 이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생겼다. 아마도 집사직분을 받고 더욱 왕성하게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고, 왕성한 전도활동으로 이런 마찰은 예견된 사건이었다.

급기야 고소고발 사건으로 번져서 스테반은 산헤드린 법정앞에 서게 되었다. 문제는 이 고소고발이 미루어 짐작하고 소문에 기초한 음해적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다. 그 죄목 역시 예수님을 공격했던 내용과 동일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제사 규례를 고치겠다는 말을 들었다.’(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삼일동안 일으키리라. 요2:19)

이런 고소고발하는 내용을 진실된 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법은 완성되었고, 이제 더 이상 어린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개혁적인 말이 스테반의 입에서 거침없이 쏟아졌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서는 할 수 없었던 말을 헬라파 유대인들은 받아 들였다는 것.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산헤드린은 스테반에게 이것이 사실인지를 묻게 되고, 스테반은 변명하게 되는데 장시간 구약성경을 요약하는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신학을 주장하게 된다.(일종의 종교재판인 셈)

-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광야생활
- 가나안 점령과 솔로몬을 통한 성전 건축
- 그러나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66:1)

-스테반은 핵심적으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다고 증언하였다.

행7:49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행7:50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행7: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행7:52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행7:53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피고가 재판부를 고발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함.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미 영안이 열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됨을 바라봄)

-보라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법정에 앉은 모든 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들고 성밖으로 가서 그를 던지고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였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 교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과거 종교개혁이 프랑스에서 꽃을 피웠는데 프랑스 사제 칼뱅이 기독교강요를 집필하면서 장로교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프랑스 국왕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예배를 방해하였다.

-그러자 수많은 위그노(프랑스의 개신교인들)들이 인근 유럽각지로 흩어져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이 어떤 식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인가? 이제 한국은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게 될 주역이 되었다.

-여러 환난에 대해 담대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마태의 종말이해

성경: 마태복음 24장

Tag: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3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가지 말며

18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지 말지어다

19 그 날에는 아이 뺨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рода

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

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5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 너희도 이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46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8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49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24:1-51)